

‘노사 공동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하림, 중대재해 ‘ZERO’ Safety in ‘ESG’
생명·안전·보건의 경영의 최우선 가치
사내 한의원 개설 직업성 질병 예방·치료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지난 17일 본사 금수강산홀에서 쾌적한 작업 환경 정착과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와 서산·배기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10계명’을 선포하고 안전 경영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하림은 △생명보호와 안전 최우선 의사결정 △노·사 간 상호협력과 안전보건 활동 참여 보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법규의 투명한 공개로 총 4가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안전·보건 목표로는 △중대재해

‘ZERO’ △공정안전관리(PSM)이행 철저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의 생명 안전보호 △위험성 평가 전 근로자 참여로 설정하고 안전경영에 집중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안전·보건 10계명은 “보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와 같은 직관적인 메시지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습관화함으로써 직장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을 위해 안전문화캠페인 확산과 사내에 한의원 개설 운영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유해·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안전 활동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지난 17일 본사 금수강산홀에서 쾌적한 작업 환경 정착과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부문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우수제안 사원으로 선정된 생산1팀 고란숙 사원, 공무팀 이상진 대리 등 5명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며 “생명 보호와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한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안전 제안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내에 13개소에 설치된 안전 제안함에 접수된 위험요인은 안전·보건 프로세스 따라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7일 전북지역 노인 생활시설 ‘성암동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에 차량을 기증했다.

농진청,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

2020년 이래 여섯 번째... 17일 김제 ‘성암동지’서 전달식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17일 전북지역 노인 생활시설 ‘성암동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에 차량을 기증했다.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전주사랑의집을 시작으로 모세송영아원(2021년), 성요셉동산양로원(2022년), 소화진달네집(2023년), 신성양로원(2024년) 이어 여섯 번째다.

이날 기증한 차량은 농진청 직원들이 지난해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연말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했다.

차량 전달식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과 고차순 성암동지 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취약계층의 이동성 보장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17일과 20일에 나눠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삼성휴먼빌, 호성보육원, 소화진달네집, 신성양로원)에 총 성금 400만원과 공적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로 구매한 생필품 10품목 2,500여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소외된 계층이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차량을 기증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문제 해결... 민·관 힘 합쳐야 한목소리

한종협-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농정 간담회 개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최홍식)는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농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농정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종협 소속 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으로 한종협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최홍식 회장을 비롯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회장,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향숙 회장, 한국생활개선

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이 참석하였다.

한종협 소속 회장단은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최근 농촌 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한목소리로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는 예산 부족에서 기



인한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농정 당국을 필두로 범부처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한전 전북, 산업안전 분야 전문강사 초빙 안전문화 정착 위한 안전교육 시행

한국전력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 위원장 서재용)는 지난 15일 전북본부 강당에서 본부장, 사업소장 등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지부·지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강사(최은나 노무사)를 초빙하여 특별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사 간부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본부 내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안전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등이 전달됐고, 교육 후 토론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연원섭 본부장은 “노사 모두 안전에 민감한 리더가 되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교육 진행

LX, 한국도로공사 직원 20여명 대상 지적 관련 보상업무 교육

LX한국도로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LX공사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한국도로공사와 맺은 ‘고속도로 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들은 토지보상 관련 지적 최신법령, 토지 이동절차, 예정지적화표도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검증 등 토지보상업무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또한 지정물 조사 등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해 드론 기술을 적용한 사례와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했다.

한국도로공사 김재용 토지공간실장은 “이번 지적분야 교육을 통해 토지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토지보상 등 업무처리 개선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토지보상업무에 있어 국민의 편익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謹 弔

삼가 알려드립니다

故 진효근((주)연합진흥 대표이사 회장)씨가 1월 17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배우자: 이지은
아 들: 진형석(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진승원
자 부: 양화정
손자 및 손녀: 진태무, 다경, 현우, 소희

빈소: 시티장례문화원
발인일시: 2025년 1월 19일(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전주승화원 / 임실강진선영

謹 弔